

재개관 행사 '다시, 옹기종기' 개최했다

총 32억 원 투입 내부 공간 전면 재구성,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 초점



울산 울주군이 26일 울주옹기종기도서관 재개관 기념행사 '다시, 옹기종기'를 개최했다. 2007년 개관 이후 18년 만에 전면 시설개선공사를 마친 울주옹기종기도서관은 사업비 총 32억원을 투입해 내부 공간을 전면 재구성했다.

노후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 초점을 맞춰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재편했다. 도서관 1층에는 누구나 편안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

는 '북 라운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유아·어린이자료실을 확장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2층은 기존 열람실을 '스터디 라운지'로 전환해 종합자료실과 연계한 집중 학습 공간으로 조성했다.

3층은 세미나실을 분리·재구성해 강의와 모임,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행사는 어린이 합창단의 시선

공연을 시작으로, 시설개선 경과보고와 기념 영상 상영, 참석자들이 함께 책을 펼치는 '책을 여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또한 베스트셀러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의 저자인 고명환 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실시했다. 고 작가는 고전과 함께 삶을 성찰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풀어낸 큰 호응을 얻었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옹기종기도서관 재개관은 공간 개선과 함께 도서관의 역할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였다"며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울주옹기종기도서관은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인문학 강연, 독서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울주군이 상복 길전일 반산업단지 내 소규모 도로에 333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호근 기자

산불방지협의회로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력구축

민-관-군-경-소방 합동예방과 진화공조로 산불피해 최소화 기반 마련

경상북도는 25일 경북소방본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 제50사단, 해병대 제1사단, 제16전투비행단, 경상북도경찰청,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30여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형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2026년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산불 유관기관 간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관·군·경·소방 등 각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2026년 산불 발생 동향 ▲경북도 산불방지 종합대책 ▲기관별 산불방지 관련 발전방안 및 협력사항 토론 등이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산불방지대책



본부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지원 가능한 장비, 인력 등 진화 자원을 사전 점검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주민의 신속한 대피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황별 대응 절차를 공유하는 등 선제

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통합지휘체계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최순호 국장은 "산불은 무엇보다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대비와 협업을 통해 소중

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26일 'AI 스마트 돌봄 경북협의체' Kick-off 회의 개최하고, AI 기반 스마트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돌봄 인력 부족 등 돌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AI 돌봄 지원 로봇 보급 시범사업 발표 ▲AI 기반 스마트 돌봄 실증 지역 거점 조성 발표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중심의 실증과 협력 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이 'AI와 돌봄 융합'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석 기자

선도기업과 스타트업 혁신 엔진 가동해

대구시, 한국가스공사·대동 등 7개사 참여...스타트업 10개사 선정



대구광역시와 대구장조경제혁신센터는 26일 대구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한국가스공사(에너지), 대동(미래 농업), 대흥코스텍(강소 제조업), HL홀딩스(모빌리티), HS화성·호반건설(건설), 한국평가데이터(데이터 금융) 등 선도기업 7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와 혁신센터, 참여기업은 ▲실증 예산 공동 투입 ▲선도기업-스타트업 간 실증 협업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혁신 연계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대구시가 2023년부터 혁신센터와 추진해 온 창업 지원 모델이다.

대·중견기업의 현장 데이터와 인프라를 스타트업에 개방해 기술 실증(PoC)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윤석 기자

스타트업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선도기업은 검증된 혁신 기술을 도입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기술 실증을 기반으로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구조다. 그간 시는 16개 선도기업과 스타트업 간 30개 협업 과제를 매칭했다. 그 결과 누적 매출 180억 원, 신규 고용 228명, 투자 유치 70억 원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에너지·미래농업·제조·모빌리티·건설·데이터금융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특히 AX(AI 전환) 등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현장에 직접 접목하는 실증 과정을 통해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은 약 8개월간 실증과제를 수행하며, 과제당 4천만 원 규모의 실증 자금을 지원받는다. 스타트업 모집은 3월 19일(금)까지 대구창업허브(DASH)를 통해 진행된다.

한윤석 기자

의령친환경골프장, 이용자 중심 운영 전면 개편한다

의령군, 3월 1일부터 헬로캐디 요금 인하·단체팀 주소지 제한 폐지

의령군 친환경골프장이 3월 1일부터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이용자 편의 확대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헬로캐디(유도카드) 요금 인하다. 골프장은 유도카드 5대를 추가 도입하고, 이용 요금을 기존 1만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했다. 셀프 라운지 동력을 확보한다.

기술 실증을 기반으로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구조다. 그간 시는 16개 선도기업과 스타트업 간 30개 협업 과제를 매칭했다. 그 결과 누적 매출 180억 원, 신규 고용 228명, 투자 유치 70억 원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에너지·미래농업·제조·모빌리티·건설·데이터금융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특히 AX(AI 전환) 등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현장에 직접 접목하는 실증 과정을 통해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은 약 8개월간 실증과제를 수행하며, 과제당 4천만 원 규모의 실증 자금을 지원받는다. 스타트업 모집은 3월 19일(금)까지 대구창업허브(DASH)를 통해 진행된다.

한윤석 기자

하유한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시 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노쇼(No-show) 방지와 편의성을 함께 높였다.

잔여 티(2인 플레이) 예약 접수 시간은 이용일 전날 오후 4시부터 오전 11시로 앞당겼다.

이용객의 일정 계획에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또한 27층 제한 규정은 폐지했다. 경기 운영 안정성과 코스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비수기에는 기존 1·2부제 대신 단부제로 전환해 수요에 맞춘 단

력 운영에 나선다. 외지 단체팀 유치도 확대한다. 기존 의령군 거주자로 제한했던 단체팀 신청 자격의 주소지 제한을 전면 폐지했다.

단체팀 규모도 최대 4팀에서 6팀으로 늘렸다. 인근 도시 동호회 등 단체 방문객 유입이 기대된다. 골프장 관계자는 "이용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혜택은 확대했다"며 "누구나 부담 없이 찾는 친환경 골프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교육생 4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농산물 가공 창업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2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농산물 가공 기초과정은 총 10회 과정이다. 가공시설 인허가 절차, 소규모 가공 공정 이해, 가공 식품 개발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모바일 콘텐츠 과정은 총 7회로 진행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품 사진 촬영 실습, AI 기반 사진 후보정 기법 등을 교육한다. 농산물 가공 센터는 현재까지 391명의 창업아카데미 수료생을 배출했다.

최성룡 기자

국회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당위성 강조해

경남도 남해안 규제 면적, 경남 행정구역 보다 커...특별법 제정 절실



경상남도는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열고,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는 남해안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구했다.

도는 남해안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구했다.

도는 남해안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수 도지사는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과 아름다운 섬들,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라며 "관광뿐 아니라 조선·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이 집적된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정작 미래 성장 동력인 남해안의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실"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정진식·문금주·김원익·이종욱·김태호·김정재·서천호 의원을 비롯한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원영일 부산시 대변인,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120

여 명이 참석해 남해안권을 조망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포럼은 개회식과 특별법 홍보 영상 시연을 시작으로 기초강연, 특별강연, 전문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공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진식 의원은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도는 포럼을 계기로 남해안권 3개 시도가 '대한민국 제2의 경제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룡 기자

해양 허브,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

부산시는 26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조승환 국회의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최도석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명예사무총장 등 주요 해양·항만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부산항의 15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해양산업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와 공동주최하고 부산항발전협의회가 주관하며, 해양수산부가 후원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항 150주년 기념식 ▲제2회 친환경 북극항로 포럼 ▲부산항 개항 150주년 학술 심포지엄 등으로 구성된다.

공식 기념식(26일)은 2076년 개항 200주년 타임캡슐 봉안을 위한 참석자 전체 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150주년 타북 ▲공로패 및 표창 수여 ▲주제시 '150년 부산항 살리자' 낭독 ▲부산항 개항 150주년 역사 상영 ▲타임캡슐 봉안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근대항 개항 이후 15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세계화와 함께 성장해 온 부산항의 발전'을 돌아보고, '글로벌 해양산업 메가포트로의 대전환'이라는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특히, 부산해사고등학교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부산해양시민대학 학생이 타임캡슐 봉안에 함께 참여해, '부산항의 미래는 다음 세대와 함께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했다.

2일 차인 27일에는 ▲오전 10시 제2회 친환경 북극항로 포럼(부산항만공사 주관) ▲오후 2시 '부산항 개항 150주년 학술 심포지엄'(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주관)이 열려, 부산항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의 과제, 미래 성장 전략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글로벌 해양허브 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우영 기자

학교·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정수기수질 99.3% 적합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관내 학교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사용 중인 정수기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99.3%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대상 1천174대의 99.3%에 해당되는 1천166대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질검사는 부산 지역 ▲초·중·고교 ▲소규모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음용수 안전

을 확보 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시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 정수기 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검사 대상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했다.

수질검사 항목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총대장균군 ▲탁도 등 2개 항목이다. 검사 결과, 물의 탁한 정도

를 나타내는 탁도는 0.03 ~ 0.25 NTU로 모든 정수기에서 수돗물 기준인 0.5NTU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수인성 질병의 지표 미생물 중 하나인 총대장균군의 경우 총 1,174대의 정수기 중 8대에서 검출되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수질검사서서 기준을 초과한 8대 중 3대는 즉시 폐기하였으며, 나머지 5대는 즉시 사용 중지, 청소·소독 등 개선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구원은 1차 수질검사서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각 사용을 중지시키고 정수기 점검·소독 등 개선조치 후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우영 연구원은 "올해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 정수기 현장점검 및 수질검사를 지속할 예정"이며, "또한 노인복지관까지 수질검사 대상을 확대해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우영 기자